임대주택 안 짓고 커뮤니티센터 키운다

도, 신산머루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계획 변경 고시
마을조합 운영 등 17개 사업 조정… 올해 마무리될 듯

제주시 신산머루 도새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이 계획 변경 이후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사업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3년간 이뤄지고 있다.

사업 지역은 일도2동 소재 일도초등학교 맞은편이며 활성화 면적은 4만6268㎡ 규모다.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33억8500만원 등 83억8500만원이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일자로 17가지의 마중물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주요 골자는 공적임대주택 건립, 자율주택 정비, 소방시설 확충 사업 등을 폐지하고 커뮤니티센터를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당초 17억5000만원에서 임대주택 사업비 13억2500만원과 자율주택정비 사업비 4억원 등을 포함해 총 38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 규모도 866.8㎡에서 1025.5㎡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목길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정비, 마을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조정됐다. 또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마을살이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개선사업, 마을복지·돌봄 교육, 주민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등의 사업도 일부 변경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시는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오는 7월9일까지 30일간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계획이 부분적으로 변경됐고, 변경한 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두달간 이어진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파업으로 자재 공급이 늦춰지면서 내년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에서 당선됐고 지난해 열린 '2019 도시재생 주민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백금탁기자

성산에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창고

오조리 지역에 조성 예정
주민·관광객 위한 쉼터로

일출로 유명한 성산지역에 문화와 자연으로 힐링할 수 있는 문화창고가 조성된다.

성산읍은 올레1코스가 지나는 오조리지역에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문화·자연이 있는 문화창고 조성에 착수했다. 문화창고는 국유지에 가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세워진다.

문화창고는 지역주민·관광객이 성산포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속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합쳐진 색다른 문화예술 쉼터로 꾸며진다. 차는 커피·녹차 등이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며, 무인카페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성산·여행정보가 담긴 책자와 지역작가의 서적이 함께 비치돼 성산·제주를 알리는 문화첨병의 역할도 하게 된다.

성산읍은 이와 함께 낭독회·저자와의 만남·서평쓰기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동아리를 활용한 작은음악회 등을 운영, 자연·문화를 통해 힐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성산읍 관계자는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문화창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특색있는 문화관광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을 하면서 문화창고를 지역 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짙은 안개 속의 산책 11일 안개가 자욱한 날씨 속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일명 '나홀로나무'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상국기자

줄어든 자동차세… 차고지증명제 등 영향

서귀포시 부과액 1.3% 감소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자동차 등 7만3226건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78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3725건·79억3100여만원에 비해 449건·1억여원(1.3%)이 감소했다. 2018년 같은 기간에는 7만1191건에 75억7100만원이 부과됐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를 비롯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한 것은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지역경기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분이 증가한 것도 또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연납을 하면 최고 세액의 1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분은 지난해 제1기분 2만5391건·57억3200만원에서 올해 2만6215건·58억300만원으로 늘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엔 추가로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가상계좌입금·ARS(1899-034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현영종기자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서귀포시 17·24일 오후 2~5시

서귀포시는 11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상담제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향후 감정평가사 상담은 6월 17일과 24일 예정돼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 사전 예약 신청도 할 수 있다. 문의=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760-214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문화 입는 연미마을… "공동체 회복"

올해 사업준비 단계 돌입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이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오라동 연미마을에서 올해부터 3년동안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1년차 사업기반 구축, 2년차 사업 추진, 3년차 사업 종료와 지속기반 마련 단계로 나눠 구성된다.

1년차인 올해는 사업준비 단계이자 대상사업 발굴·선정을 위한 예비단계로 마을의 문화적 특성(고유성·다양성·창조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 핵심가치 창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마을에선 문화공동체적 활동의 안착을 위해 마을 추진협의체·행정·문화기획자로 사업추진협의체가 꾸려졌다.

6월부터 시행할 사업은 ▷문화마을 주민네트워크사업 ▷문화마을 주민공동체 타시도 우수사례 답사 프로그램 운영사업 ▷연미마을 축제사업 운영 ▷연미마을 콘텐츠 발굴과 아카이빙 사업 등 4개 분야로 공모를 거쳐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심사로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인생책장' 릴레이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

제주시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이 '제주형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는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인생책장'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은 내 삶에 향기가 되어 준 인생의 책 한권을 타인에게 소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책장에 꽂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릴레이 참여는 본인의 '인생 책'이나 '소개하고 싶은 책'을 촬영해 촬영한 사진과 추천한 사람을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릴레이 참여는 제주시 우당도서관에 마련된 인생책장에 자신의 책을 선정해 간략한 책 소개와 함께 책을 꽂으면 되고, 도외 참여자는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완성된 제주도 모형의 인생책장은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는 오는 9월 행사장에 소개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잡초의 경감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낭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